

조기형의 맛 이야기

맛으로 연결하는 감정



조기형  
·지오맛아카데미 맛평가사  
·맛평론 저자

감정을 유발하는 맛

맛을 즐길 때 그 느낌의 함량을 가정한다면 10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 있다. 맛을 즐길 때의 만족은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때가 감정의 범주와 감정의 순도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학습법의 기본은 즐거움이고, 집중의 지속이며, 성실한 습관과 동기부여이다. 이러한 과정은 감정의 역할이 바탕에서 지원할 때 더욱 높아진다. 어릴 때부터 맛의 느낌을 올바르게 확인하면 그 경험이 차곡차곡 축적되고, 감정은 순수하게 쌓아진다. 이러한 결실은 어릴 때의 습관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맛은 감정을 유발하는 매개체이다. 맛을 파악할 때마다 감정을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며 맛을 확인할 때마다 경험의 함량이 축적된다.

행복한 학생의 기준

맛은 너무 쉽게 접하는 단어이다. 지식의 정보는 고상하고 거북함이 묻어날 때 탐구력이 더 많이 생성되고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데 맛은 너무 보편적이며 너무 평범하고,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맛의 진가를 알기가 매우

영재학습에 필요한 감정의 역할

영재학습의 핵심은 감정을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정의 생산이 활발할 때 인식의 순도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맛을 느끼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 반응의 역할로 감정이 만들어진다. 맛으로 인한 감동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감동이 쌓이면서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활성화 시킨다. 맛있다거나, 맛없다는 표현은 맛이 경험되고 감정이 생산된 이후의 표현이다. 맛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몸의 신경계를 작용하게 하고 근육을 반응시키며, 이에 따른 생각이 뭉쳐서 감정을 생



맛으로 인간 감동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동하게 한다. 맛을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감각의 반응이다. 그래서 먹을 때는 인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반응의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맛은 관계를 잇는 매개체

맛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감각의 이해와 경험을 연결한다. 도올 김 용옥 선생님은 “중용, 인간의 맛”을 강론하면서 “맛은 이성과 감성을 매개하며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며 상대와 절대를 통섭하며 인간과 하나됨을 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맛은 상호간의 연결을 돕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맛을 느낄 때는 감정이 솟아오르고, 이를 기반으로 신경계가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인식의 범주는 확장된다. 그렇지만 맛의 반응이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때는 단지 배부름을 위한 생존의 만족을 누릴 때이다. 배부름은 생존의 필수 조건인지만 그 역할은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어렵다. 공기 중 산소의 고마움을 잊을 때가 있듯이 맛이 주는 행복을 놓칠 때가 많다. 청소년기에 맛을 탐구하면 제일 먼저 감정이 풍부해지고, 사물에 대한 인식 기준이 달라진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자기 진화를 기반으로 한 목표달성이다. 이러한 자기완성을 위해서 앞만 보고 질주하듯이 뛰어가는 학생들에게 맛의 감성이 함께 한다면 풍요로움이 더해질 것이며 행복의 경험이 더해질 것이다.

감정의 활성화지수를 높이기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유명학원을 찾는 것보다, 감정을 풍만하게 살찌우면 평생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맛이 주는 행복을 50% 정도의 수준으로 즐기는 사람과 100% 수준으로 즐기는 사람의 차이는 감정의 활성화지수로 구분된다.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작은 인식을 놓치지 않고 즐기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 시대 어른이 들려주시는 말씀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도익성  
(주)우리건설 대표  
저서  
[삶을 가르는 77가지 인생공명]  
[만들어 가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언젠가 죽은 다음 절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살아온 삶에 대하여 복명(復命)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인간사의 모든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그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시도했는지 종류별로 나열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30종류에 가까운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일들을 계속하여 시도할 것입니다.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의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이며, 놀 때는 활화산의 용암이 터지는 것처럼 놀고, 쉴 때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편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무엇을 하다 왔느냐?”

초등학교 때,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께서 자주 물으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시험은 잘 봤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는지... 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여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출장을 다녀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출장 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육하원칙(六何原則)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조직이나 일정 시간 동안 공백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행위를 하고 다녔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보호자들, 혹은 관리자 등의 궁금증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꾸중, 또는 칭찬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간, 즉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간 세상에 출장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영(靈)의 세계로 되돌아가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진실 되게, 살다 왔다”라고 하늘에 보고하고 싶은 것이 삶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학생·청소년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도전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좀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하다 왔느냐?”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기사제보 02-6949-2025  
광고문의 thestudent1988@naver.com